

경제성장이론의 최근 동향과

정부정책의 역할

경제성장은 빈곤을 퇴치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경제학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딱하게도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를 소홀히 다루어온 감이 없지 않다. '80년대까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거시경제정책등 경제성장 이외의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매달려 왔다.

초기 경제학자들도 경제성장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아담 스미스는 「國富論」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분업, 자본축적 및 기술진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을 제공했다. 스미스는 이 저서에서 시장내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률체제를 강조하는 한편 자유무역체제를 통해 빈국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세기 초 리카르도는 경제성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인 「수확체감의 법칙」을 공식화하고 토지에 대한 추가적 투자의 수익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멈추게 된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대 경제성장 이론의 기초는 50년대 소로와 스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의 경제성장모형은 완전경쟁시장하에서 노동과 자본등 요소투입이 늘어나면 산출량도 늘어나지만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된

다고 가정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신고전파 성장모형은 두가지의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자본이 축적되면서 성장은 점차 둔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축적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진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는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에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빈국은 부국보다 성장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기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이런 이론적인 시사점들은 현실경제와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 이후 30여년동안 경제성장문제는 경제학에서 다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들어 신경제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의 등장으로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이론은 무엇보다 신고전파 성장이론이 가정했던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기술진보가 없더라도 경제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로머는 기존의 자본 개념에 노동력에 체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포함한 인적 자본을 확대·적용함으로써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경제성장이론의 또 다른 조류인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은 기술진보를

모형안에 내생시키고 있다.

신경제이론은 신고전파 성장이론이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불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경제성장이론에서는 기업들이 어떤 조건하에서 가장 생산적으로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술진보가 경제학자들의 경제성장에 관한 사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한편 최근 경제성장이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경제성장이론은 인적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신고전파 성장이론의 노동개념을 세밀하게 정의해 놓은 데 불과하며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의 개념이 적절하게 조정된다면 신고전파 성장이론도 신성장이론의 주요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 있으므로 신경제성장이론이 신고전파 이론에 추가한 것은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장 가난한 나라들일지라도 부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은 국내외에서 경쟁과 인센티브에 대해 보다 큰 역할을 부여하는 정책에 의해 최대화될 수 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성장이론이 가장 적합하였느냐와 동일한 뜻이 되겠지만, 이들 국가의 어떤 정책이 더 중요했느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0년대의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이 로머의 이론과 함께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두 이론 모두가 정부의 역할을 간접적으로만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올슨은 지금까지의 성장이론이 내포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여 주었다. 올슨은 세계에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들은 빈국중에서

도 극히 예외적인 소수 집단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신고전파 성장이론과 신성장이론 모두가 경제성장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슨은 두 성장이론이 모두 자원과 기술을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실적으로 자원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두 성장이론은 자원이 변하지 않는다면 산출 역시 변화할 수 없음을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슨은 가난한 나라들은 자원의 대부분을 낭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같은 나라들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방법은 적절한 자원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슨은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빈국들이 실제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올슨은 이밖에도 대다수 빈국의 경우 자본과 지식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는 경제정책과 제도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키는 세계적인 경제성장형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뿐 아니라 조건부 소득수렴에 의한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빈국은 따라잡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신흥 국가들이 보여 주었듯이 빈국의 경제성장 기회는 항상 존재하며, 빈국의 문제는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존자원의 부적절한 이용에 있었던 것으로, 89년 이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사회주의 국가를 보더라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에 무엇이냐 하는 것은 실증적인 결과를 놓고 새롭게 고민을 해야 할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에서〉